

NOTIFICATION



신영자산운용 고객 안내문

코로나 팬데믹 극복 일환으로 촉발된 초저금리 환경에서 자산가격은 일제히 회복 양상을 보였습니다. 백신 보급으로 인해 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며, 연초 이후 비교적 소외되어 있던 저평가 가치주들의 상대적 약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3,000pt를 넘기고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와중에, 가격부담으로 인해 투자를 지속해도 좋을 지 제 각각의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고민 해결의 실마리라도 제공해드릴 수 있게끔, 당사 허남권 대표이사의 가치주 장세에서의 투자 전략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공유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시청 방법

1. 당사 홈페이지 접속 (www.syfund.co.kr)
2. 유튜브 검색창에  **신영자산운용**  을 검색
3. QR 코드 인식 가능 앱(예 : 카메라,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이용하여 우측 QR 코드를 비추시면 동영상 연결 링크 팝업



 신영자산운용

신영퇴직연금가치40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자산운용보고서

—
운용기간 : 2021.07.03. ~ 2021.10.02.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한 눈에 보는 펀드 현황 (2021.10.02. 기준)

신영퇴직연금가치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은 자산의 40% 이내에서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안정적인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은퇴후 목돈 마련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자산가치의 증식을 추구하는 퇴직연금 전용 채권혼합형 펀드입니다.

3개월 운용경과

- ✓ 펀드는 약세였던 인터넷 업종 및 고평가된 신규 상장주에 노출이 없었던 영향으로 성과 향상
- ✓ 국내 증시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및 정부의 규제, 금리의 상승세로 인해 조정기를 가짐
- ✓ (채권) 자산매입 축소,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 및 미국시장의 금리 상승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 기업의 이익체력이 튼튼하여 이익전망치가 긍정적 인 종목들에 대해 보유 유지
- ✓ 백신접종율 상승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되며 수혜를 받을 업종의 비중 확대
- ✓ (채권)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 예정

펀드 수익률 현황

최근 3개월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2.78%	+7.47%	+11.61%	+16.71%
비교지수대비: +0.20%p	비교지수대비: -1.42%p	비교지수대비: -4.01%p	비교지수대비: -5.43%p

투자대상 업종 상위 5 (%)	투자대상 종목 상위 5 (%)
전기전자 28.23	국고02000-3106(21-5) 17.25
화학 9.73	삼성전자 7.37
금융업 9.72	국고02375-2712(17-7) 4.80
코스닥 9.58	국고02375-2812(18-10) 3.20
운수장비 7.20	한국전력852 1.63

신영퇴직연금가치40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자산운용보고서

운용기간 : 2021.07.03. ~ 2021.10.02.



대표이사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입니다.

작년 들어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을 흔들며 놓은 코로나19 사태는 올해에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 이후 백신들이 상용화되어 접종이 시작되면서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승세도 이어졌습니다. 2019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주식시장 상승을 주도하던 일부 성장주 이외 업종과 종목들로도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올해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3,000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가치주와 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는 당사 펀드들의 상대적인 성과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작년 이후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과 성장주로의 극단적인 쏠림 현상 속에서도 고객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험난한 주식시장 속에서도 가치투자 철학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저평가된 업종 대표 우량주들과 가치주 및 배당주 위주의 균형 잡힌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들어 펀드들의 성과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백신의 공급 부족과 변종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국가별 양극화, 산업별 양극화, 소득계층별 양극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극화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에서도 이러한 영향과 함께 간접투자상품 운용에 있어 요구되는 전문성은 갈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의 오랜 부진으로 기존 운용사들의 운용성과가 장기간 부진하였으나 올해 들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반등 및 유동성 확대에 의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놀려 있었던 가치주들의 반등이 가치주 펀드들의 성과를 크게 개선시키고 있고 더 나아가 공모주식형 펀드 전반에 걸쳐 점차 성과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작년까지 직접투자 및 사모펀드로의 쏠림이 점차 공모펀드로 회귀함으로써 다시금 공모펀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신영자산운용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대표적인 자산운용사 중의 하나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러한 신뢰는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치주 투자에 특화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용성과 제고를 이루어내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이는 곧 고객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고객의 수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자산운용을 믿고 소중한 자산을 맡겨 주신
고객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

허남권



CONTENTS

신영자산운용이 투자자에게 드리는 자산운용보고서



》 자산운용보고서 공지사항

1. 동펀드는 모자형 구조의 펀드로써 이 자산운용보고서에서 자산구성현황, 보유종목, 보수 및 비용 등의 정보는 고객님의 가입한 신영퇴직연금가치4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이 투자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고객님의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현행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신영퇴직연금가치4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자산운용회사인 신영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약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약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 신영자산운용 홈페이지(<http://www.syfund.co.kr>) → 펀드정보 → 펀드명 검색 → 자산운용보고서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http://dis.kofia.or.kr>) → 펀드공시 → 보고서 선택 → 자산운용보고서 선택 → 펀드명 검색 → 조회
4. 이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 전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 확인 및 고객정보 변경 처리는 펀드를 가입하신 판매회사의 지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메일로 자산운용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객님의 발송해드리고 있으며, 이메일 수령 신청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산운용 보고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전환 신청은 가입하신 판매회사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펀드 현황

- 운용 경과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1. 펀드의 개요

- 기본 정보
- 재산 현황
- 펀드 구성

4. 투자운용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2. 수익률 현황

- 기간(누적) 수익률
- 손익 현황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 총보수·비용 비율

3. 자산 현황

- 자산구성 현황
- 자산별 구성비중
- 투자대상 업종 상위 10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 투자대상 내역 상위 10
- 각 자산별 보유 내역

6. 투자자산 매매내역

- 매매주식 규모 및 회전율
-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 참고 - 펀드용어해설 >

운용 경과

신영퇴직연금기치40증권투자자산탁(채권혼합)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78%로 비교지수 수익률 -2.98% 대비하여 0.20%p 상회하였습니다.(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 36% + KIS종합채권지수 54% + Call 10%)

[주식 부문]

상반기 내내 진행되던 글로벌 경기의 강한 반등세가 지난 분기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경기회복세는 진행 중이었으나 투자심리를 짓누르는 요인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중국이 긴축으로 선화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조정세를 보였고 인터넷, 교육, 게임, 부동산, 카지노 등 각 산업별로 각종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델타변이로 인한 미국의 코로나 확산이 재점화 되었고, 아시아 시장의 코로나 확산세와 더불어 글로벌 부품의 공급망 차질이 대두되면서 기업들의 향후 이익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연초부터 긴축으로 선화하며 물가안정을 꾀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을 염두에 둔 리스크 관리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공동부유론을 앞세우며 자본주의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수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해석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내 백신접종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아시아 코로나 확산세도 정점을 찍으면서 코로나확산에 대한 불안심리는 다소 진정되었습니다. 다만 완전 종식이라는 기대는 점차 사라지고 있어 코로나 종식 이후의 수혜 산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완만한 회복을 감안한 투자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여러가지 부정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월별 수출 데이터는 매우 견조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년도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가 제거되고 난 후 8월, 9월 데이터도 견조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부품, 화학, 정유 등의 수출 성장세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글로벌 경제가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공급망 차질은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3분기 이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부품 부족 사태는 3분기가 정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복속도는 시장의 기대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연초 상승세를 접고 조정기를 맞았습니다. 3분기 초는 지수하락 폭이 크지 않았고 섹터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는 변동성이 높은 장세였으나 9월말 경기 불확실성 확대되며 지수가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3분기 초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상승하던 금리가 주춤하면서 인터넷 업종과 카카오펙, 크래프톤, 백신관련주 등 신규성장종목 등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이들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분기 말 정부의 규제 및 금리가 상승세로 방향을 바꾸면서 고평가 종목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현재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지난 10년간 인터넷 기업들의 사업확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확장속도나 M&A가 쉽게 과거처럼 쉽게 이루어 지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주식의 멀티플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용 경과

지난 분기는 인터넷업종 및 고평가된 신규IPO 종목들의 노출도가 없었던 것이 분기 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구경제 산업 업종이 양호한 가운데 수소 및 탄소중립관련 신사업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종목들의 성과기여도가 높았습니다.

[채권 부문]

7월 중순 국내 시장은 한국은행의 금융 불균형 누증 문제의 해결 필요성 강조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단기 금리가 급등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미국의 경기 회복 고점 논란이 불거지며 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경기 반등에 대한 의구심 확대되며 장기 금리가 하락하였습니다.

8월 국내 시장은 코로나 4차 유행 지속으로 8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악화되면서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 통화정책 정상화의 필요성을 언급해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금리는 하락을 모두 되돌렸습니다. 월 말 기준금리 인상(0.75%)이 결정됐지만, 금리 인상을 선반영한 수준에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상회하였고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되며 금리가 반등하였습니다.

9월 국내 시장은 홍남기 부총리가 올해 기준금리가 한차례 인상에 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한 점과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경제 억제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발표한 영향에 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9월 FOMC(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연내 자산매입 축소 발표와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으로 추석 연휴 이후 금리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도 9월 FOMC 이후 경기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며 금리는 상승하였습니다.

10월 초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비 2.5%로 예상치 2.3%를 상회하고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 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중점이 1.50%가 될 가능성을 반영하며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시장도 연내 자산매입 축소 시행 가능성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 부담으로 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동 펀드는 7월에도 자금시장 수급이 부족하면서 크레딧(국고채 외 채권) 채권 금리가 상승하여 저가 매물로 나온 우량 크레딧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8월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장기 경기 모멘텀이 악화될 것이라 전망하여 중단기물 채권을 매도하고 장기물 채권을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레포 매도를 이용하여 은행채를 보유하면서 이자수의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9월부터 초장기물 채권의 금리 메리트 하락으로 초장기물 채권을 매도하고 장기물 채권을 매수하는 교체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투자 환경 및 운용 계획

[주식 부문]

중국의 부동산 회사인 헝다그룹의 채무 불이행 리스크, 코로나 델타변이의 확산세 지속 등이 시장의 경계심을 지속시키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11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테이퍼링^{주1)}(양적완화 축소)는 큰 약재는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물가상승속도는 금리인상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서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변수입니다. 미/중 관계가 팽팽한 긴장상태이고 중국 당국의 정책 스탠스가 자본 시장에 비우호적인 상황은 연초 기대했던 시장의 모습보다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글로벌 경기가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상태를 넘어 정상적 경제흐름으로 넘어가는 국면이고 아직 미국의 수요기반이 탄탄하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급락할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증시는 중국의 정치 리스크와 더불어 연초부터 외국인인 패시브 자금유출은 지속되었고 현재는 외국인 비중이 30% 수준으로 과거 대비 상당히 낮은 비중에 머무르고 있어 과격한 외국인 매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 개인의 신통투자가 시장 하락 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리스크로 생각합니다. 하반기 이익전망치가 다소 하향되고 있는 국면이긴 하나 국내 대형상위 종목들의 이익전망치는 크게 훼손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대형종목들의 가격대가 매수하기에 부담이 없는 구간이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현재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 판단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및 재무구조, 미래에 대한 신사업 준비는 과거 몇 년간과 비교했을 때 상당부분 진전을 이루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이슈 및 수소 시장 개화, ESG강화 등이 한국의 저성장 산업구조와 맞물리면서 성장에 촉매가 되고 있어서 현시점은 종목들의 개별 가치를 믿고 보유해야 할 구간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재개되었을 때 외국인 매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가격대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책기조는 글로벌 자본시장에는 부정적인 이슈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경계하는 포트폴리오 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변동성이 높은 구간이므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내재가치가 높은 종목위주로 지속 발굴 편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있어 지난 10년간 없었던 CAPEX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전의 CAPEX 사이클은 중국의 기존 공경제 중심이었다면 이번 CAPEX 사이클은 자동차, IT, 유통 등 신기술 대응과 자동화에 맞춘 시설 투자가 진행중입니다. IT와 기계 산업은 이에 필수적인 산업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련주 및 부품주 등이 유망하다 여겨집니다. 대형 IT종목도 연초부터 오랜 기간 조정을 거치며 가격부담을 덜었습니다. 국내 IT업체들은 글로벌 부품사들 중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의 변화에 중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IT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떨어진 상황이나 2022년에도 이익성장이 지속되는 종목위주로 좋은 매수기회를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백신접종율이 상승하면서 리오프닝 주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관련주 중 저평가 종목을 발굴해 비중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내수주는 독점적 MS를 점유하여 제품 개발력과 가격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보유중이며 이들의 이익성장은 2022년에도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투자 환경 및 운용 계획

[채권 부문]

코로나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 방역 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봉쇄 조치는 점차 완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봉쇄 조치 완화에 일시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식료품과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이어져 4분기 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며 월간 500억 달러를 지속 상회할 전망입니다.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인상 소수의견 2명 확인한 점과 이주열 총재의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고려할 때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은 11월 FOMC(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자산매입 축소 일정을 공식화하고 연내 자산매입 축소를 시행할 전망입니다.

4분기 채권시장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수급이 다소 부정적일 전망입니다. 또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 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점도 수급에 부정적입니다. 다만 국고채 발행이 감소 추세에 있고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재매입 계속되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동 펀드는 연내 추가 인상을 포함해 앞으로 2~3회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3월부터는 성장 모멘텀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준금리 인상 경로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기준금리가 1.50%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펀드는 추가 금리 인상을 과도하게 반영한 레벨에서 듀레이션^{주2)} 전략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며, 불확실성이 큰 방향성 전략보다는 수익률 곡선^{주3)} 전략 등 이자수익이 극대화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1) 테이퍼링(Tapering):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취했던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Taper는 폭이 점점 줄어들어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를 매입하는 등의 수단으로 통화를 시장에 추가로 유통시키는 양적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주2) 듀레이션(Duration):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율을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듀레이션이 클 수록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폭이 증가하며, 반대로 듀레이션이 작을 수록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이 변동폭이 감소합니다.

주3) 수익률 곡선(Yield Curve): 채권 만기와 채권 수익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통의 경우 채권 만기와 수익률은 비례합니다. 수익률 곡선은 기준금리 변동 및 시장전망 변동 등에 따라 평탄화되거나 가팔라집니다. 채권이 수익률과 가격이 반비례이므로, 수익률 곡선 상에서 채권 만기 구간별 수익률 차이에 따른 매매를 시도하여 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채권의 만기 구간에 따라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다르며, 기울기가 더 가파른 구간의 수익률 곡선 하락효과가 더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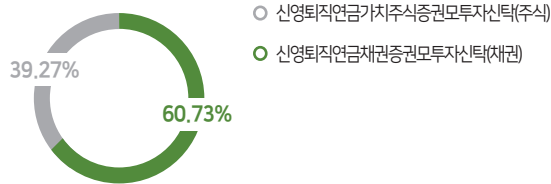
1. 펀드의 개요

기본 정보

펀드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투자위험등급	
신영퇴직연금가치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53638	4등급 (보통위험)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53636		
신영퇴직연금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53637		
신영퇴직연금가치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E형	BT897		
신영퇴직연금가치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형	A8995		
신영퇴직연금가치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F형	A8996		
펀드종류	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최초설정일	2006.01.03
운용기간	2021. 7. 3. ~ 2021. 10. 2.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신영자산운용	펀드재산보관회사	국민은행
판매회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 27개사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품의 특징	동펀드는 자산의 40% 이내에서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안정적인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은퇴후 목돈 마련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자산가치의 증식을 추구 하는 퇴직연금 전용 채권혼합형 펀드입니다.		

펀드구성

자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모펀드 비중



※ 자펀드가 투자 중인 모펀드 비중 및 구조를 보여줍니다.

※ 상기 그래프 및 구조도는 모자형 구조의 펀드에서 현금성 자산 등을 제외한 모펀드들의 투자비중을 100%로 가정하여, 각 모펀드에 투자하는 비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기의 모펀드 투자 비중은 순자산 기준 투자 비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

펀드 명칭	항목	전기말 (2021.04.02.)	당기말 (2021.07.02.)	증감률
신영퇴직연금가치40 증권자(채권혼합)운용	자산 총액 (A)	146,932	139,572	-5.01
	부채 총액 (B)	83	113	37.12
	순자산총액 (C=A-B)	146,849	139,459	-5.03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130,143	127,128	-2.32
	기준가격 ^{주)} (E=C/D×1000)	1,128.37	1,097.00	-2.78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신영퇴직연금가치40 증권자(채권혼합)C-E형	기준가격	1,030.17	1,000.15	-2.91
신영퇴직연금가치40 증권자(채권혼합)C형	기준가격	1,123.70	1,090.21	-2.98
신영퇴직연금가치40 증권자(채권혼합)F형	기준가격	1,123.10	1,091.05	-2.85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주) 상기 재산현황에서 기준가격의 증감률은 펀드의 수정기준가를 통해 계산된 수치가 표기됩니다.

2. 수익률 현황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신영퇴직연금가치40 증권자(채권혼합)	-2.78	-2.03	0.31	7.47	12.72	11.61	16.71
(비교지수 대비 성과)	0.20	-0.93	-1.04	-1.42	-3.96	-4.01	-5.43
종류(Class)별 현황							
신영퇴직연금가치40 증권자(채권혼합)C-E형	-2.91	-2.30	-0.08	6.90	11.52	9.83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07	-1.20	-1.43	-1.99	-5.16	-5.79	-
신영퇴직연금가치40 증권자(채권혼합)C형	-2.98	-2.43	-0.28	6.61	10.93	8.96	12.13
(비교지수 대비 성과)	-	-1.33	-1.63	-2.28	-5.75	-6.66	-10.01
신영퇴직연금가치40 증권자(채권혼합)F형	-2.85	-2.18	0.09	7.15	12.06	10.62	15.00
(비교지수 대비 성과)	0.13	-1.08	-1.26	-1.74	-4.62	-5.00	-7.14
비교지수주)	-2.98	-1.10	1.35	8.89	16.68	15.62	22.14

주) 비교지수 : KOSPI 36% + KIS종합채권지수 54% + CALL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전기	1,243	-136	6	3	0	0	0	0	-2	8	1,123
당기	-3,784	-216	5	0	0	0	0	0	-19	2	-4,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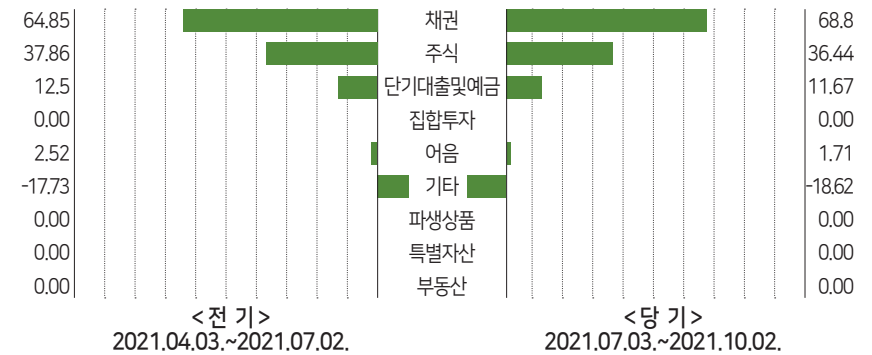
※ 전기 : 2021.04.03.~2021.07.02. / 당기 : 2021.07.03.~2021.10.02.

3. 자산 현황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00)	50,866 (36.44)	96,028 (68.80)	2,389 (1.71)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6,283 (11.67)	-25,994 (-18.62)	139,572 (100.00)
합계	50,866	96,028	2,389	0	0	0	0	0	0	16,283	-25,994	139,572

* () : 구성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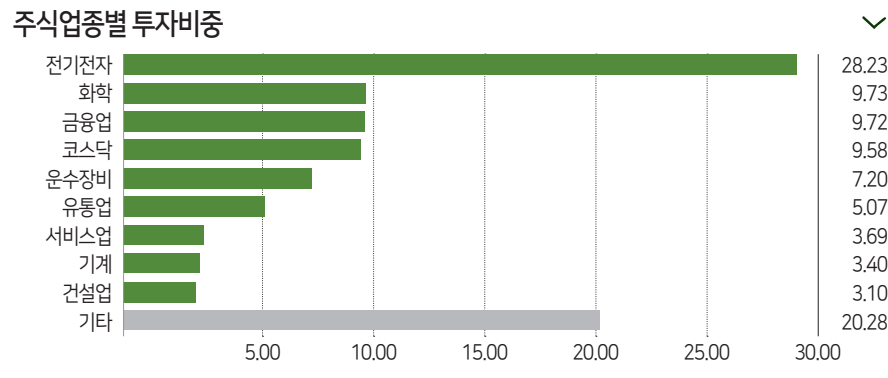
자산별 구성비중



※ 위의 결과는 해당 자펀드의 실제 자산보유 내역을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펀드의 자산구성 내역을 해당 자펀드가 각 모펀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안분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익증권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와 비교하여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업종 상위 10 (단위: %) ∨

순위	업종명	비중	순위	업종명	비중
1	전기전자	28.23	6	유통업	5.07
2	화학	9.73	7	서비스업	3.69
3	금융업	9.72	8	기계	3.40
4	코스닥	9.58	9	건설업	3.10
5	운수장비	7.20	10	기타	20.28



※ 위 업종구분은 한국거래소의 업종구분을 따릅니다.

- 각 자산별 보유 내역 (모펀드 기준) -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는 종목을 기재합니다.

주식 (단위: 주, 백만원, %) ∨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발행국가	통화	업종	비고
삼성전자	140,492	10,284	7.37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채권 (단위: 주, 백만원, %)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신용등급	비중
국고02000-3106(21-5)	24,454	24,078	대한민국	KRW	2021.6.10.	2031.6.10.	N/A	17.25
국고02375-2712(17-7)	6,550	6,704	대한민국	KRW	2017.12.10.	2027.12.10.	N/A	4.80
국고02375-2812(18-10)	4,367	4,465	대한민국	KRW	2018.12.10.	2028.12.10.	N/A	3.20
한국전력852	2,183	2,280	대한민국	KRW	2013.07.05.	2023.07.05.	AAA	1.63
국고02625-2806(18-4)	2,183	2,269	대한민국	KRW	2018.06.10.	2028.06.10.	N/A	1.63
농금채(중앙회)2018-04이5Y-A	2,183	2,233	대한민국	KRW	2018.04.06.	2023.04.06.	AAA	1.60
우리은행22-01-이표05-갑-17	2,183	2,229	대한민국	KRW	2018.01.17.	2023.01.17.	AAA	1.60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국민은행	2012. 4. 1.	5,381	0.46		대한민국	KRW
단기대출	삼성증권	2021.10. 1.	4,600	0.80	2021. 10. 5.	대한민국	KRW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④ 4. 투자운용인력 현황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

성명	직위	출생연도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 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허남권	책임운용역	1963	69	3,460,109	1	1,571	2109000131
심창훈	책임운용역	1975	41	1,077,130	0	0	2110000545
원주영	책임운용역	1974	26	1,098,114	2	373,024	2109000987
최태이	부책임운용역	1973	8	193,049	0	0	2110000735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 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구분	기간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역	2006.10.31. ~ 현재	허남권
책임운용역	2017.11.17. ~ 현재	심창훈
책임운용역	2017.11.17. ~ 현재	원주영
부책임운용역	2021.04.29. ~ 현재	최태이
부책임운용역	2015.02.13. ~ 2021.04.28.	장미

※ 최근 3년간의 투자운용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⑤ 5. 비용 현황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전기		당기		
	2021.04.03.~2021.07.02.		2021.07.03.~2021.10.02.		
	금액	비율주1)	금액	비율주1)	
신영퇴직연금 가치40증권자 (채권혼합)	자산운용사	0	0.00	0	0.00
	판매회사	0	0.00	0	0.00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00	0	0.00
	기타비용 ^{주2)}	2	0.00	2	0.00
	매매.중개 수수료	39	0.03	18	0.01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10	0.01	4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49	0.03	22	0.02
	합계	58	0.04	24	0.02
증권거래세	5	0.06	5	0.06	
신영퇴직연금 가치40증권자 (채권혼합) C-E형	자산운용사	5	0.06	5	0.06
	판매회사	5	0.07	6	0.07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0	0.00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10	0.13	12	0.13
	기타비용 ^{주2)}	0	0.00	0	0.00
	매매.중개 수수료	2	0.03	1	0.01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1	0.01	0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3	0.03	1	0.02
	합계	3	0.04	1	0.02
증권거래세	80	0.06	78	0.06	
신영퇴직연금 가치40증권자 (채권혼합) C형	자산운용사	185	0.13	182	0.13
	판매회사	7	0.00	7	0.01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5	0.00	5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5	0.00	5	0.00
	보수합계	277	0.20	272	0.20
	기타비용 ^{주2)}	2	0.00	3	0.00
	매매.중개 수수료	37	0.03	17	0.01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9	0.01	4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46	0.03	21	0.02
	합계	54	0.04	23	0.02
증권거래세					

6. 투자자산 매매내역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전기 2021.04.03.~2021.07.02.		당기 2021.07.03.~2021.10.02.		
	금액	비율주1)	금액	비율주1)	
	자산운용사	0	0.06	0	0.06
판매회사	0	0.01	0	0.01	
신영퇴직연금 가치40증권자 (채권혼합) F형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07	0	0.07	
기타비용주2)	0	0.00	0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3	0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1	0	0.00
	합계	0	0.03	0	0.02
증권거래세	0	0.04	0	0.02	

주1)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주2)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없음

총보수·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

구분	총보수·비용비율주1)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주2)	합계(A+B)
신영퇴직연금가치40 증권자(채권혼합)	전기 0.0013	0.0827	0.084
	당기 0.0013	0.0850	0.0863
신영퇴직연금가치40 증권자(채권혼합)C-형	전기 0.5349	0.0919	0.6268
	당기 0.5349	0.0873	0.6222
신영퇴직연금가치40 증권자(채권혼합)C형	전기 0.8023	0.0824	0.8847
	당기 0.8022	0.085	0.8872
신영퇴직연금가치40 증권자(채권혼합)F형	전기 0.2968	0.0835	0.3803
	당기 0.2967	0.0871	0.3838

주1)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 전기: 2021.04.03.~2021.07.02. / 당기: 2021.07.03.~2021.10.02.

매매주식 규모 및 회전율

(단위: 백만원, %)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주)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521,822	21,343	419,541	22,854	19.79	78.52

주)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금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냅니다.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

2021.01.03. ~ 2021.04.02.	2021.04.03. ~ 2021.07.02.	2021.07.03. ~ 2021.10.02.
27.98	44.78	19.79

펀드용어해설



용어	내용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펀드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펀드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펀드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펀드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펀드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주식형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 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납입(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권유 및 설명, 투자 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